

전주교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앞장

근로자 31명 전환... 맞춤형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처우 개선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에서는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31명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데 이어, 이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차별 해소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한복, 작업화 등 근무복을 지급하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피복비, 근무환경개선비용 약 500만원 투입)

휴게공간에는 환경미화 직원들의 사무공간, 세면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

을 갖추고, 야간 경비원들을 위한 수면 장소 및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교대 박상석사무국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회계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체감도를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고 기존의 대학 교직원들과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정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회계직원 김병덕 주무관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근무환경의 질이 여러모로 대폭 개선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서남대 폐쇄 후속대책 마련 속도낸다

남원발전대학유치추진위 발족 지역민 피해 최소화 등 활동 시작

서남대학교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2월 13일, 가장 남원발전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해산명령으로 오는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지난 6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전북 도내 정치권과 남원시민·행정·단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잠재되어 있다.

서남대 폐쇄에 따라 지역상권은 이미 폐허된지 오래이며, 있는 것을 뺏길 수 없다는 지역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후속대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왔던 공동대책위원회의 해

산과 관련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가정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발족식을 가졌으며 위원회 활동사항 및 최근의 상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당초 서남대 설립취지에 맞게 의료·나후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해택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전북에 유지하고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서남대 부

지에 건립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치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쉽지않은 여정이지만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서남대 텅빈 공간을 새로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민의 허탈감을 해소하고 남원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서남대 폐쇄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

/남원=유영철 기자



“위기의 전북 교육... 혁명 필요하다”

천호성 전주대학교 교수 전북도교육감 출마 선언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에서 10년간 교사생활을 했으며, 문부성국비유학으로 나고 아대학에서 수업분석을 전공했으며 2006년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가 된 뒤 12년동안 전국의 500여개(전북 300여개)학교를 방문하여 수업협의, 수업컨설팅, 수업연구와 분석을 통해 학교가 도전하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었기에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수업연구학회(WALS)에서 한국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료 정평이 나 있다.

/익산=장영원기자

천호성(사진)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겸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13일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교육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근간이 되는 것이며 모든 지역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교육이 교육답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도 없으며 지금의 교육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북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과 전북의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발표... 195명 선발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95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20명(일반 110명, 장애 7명, 저소득층 3명), 사서직 13명,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12명, 시설직(건축) 12명, 운전직 38명이다. 이 중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2명과 시설직(건축) 2명은 특성

하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며,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옛 전주 모습 깃들다

벽면 전체 캔버스 탈바꿈... 고지도 벽화 제막식

전주시가 찬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구도심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중인 가운데 완산경찰서 벽면 전체가 전주의 옛 모습이 그려진 캔버스로 탈바꿈됐다.

시는 13일 완산경찰서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정호훈 의원, 전주시의회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은철·허승복·김순정 의원, 서영주 완산경찰서 경무과장, 한미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최기현 전주웨딩거리 상인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경찰서 벽면에 설치된 18세기 전주 고지도 벽화의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완산경찰서 동쪽 벽면 전체에 그려진 '18세기 전주지도(규장각 소장)'를 전북대 홍찬석 교수가 재해석한

'전주의 봄'이라는 작품이다. 원본 지도에는 경기전과 선화당과 선자정 등 전라감영 내 부속건물, 전주부성 4대문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흥 교수는 이 작품을 통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꽃피는 전주의 봄날 풍경과 그 속에 다양한 군상들이 어우러져 인정 넘치는 전주의 생활상을 표현했다.

시는 이 작품을 하나의 그림을 분할해 각각의 타일에 프린트한 후 이어 붙이는 '아트타일 프린트 공법'을 이용, 가로 1m, 세로 50cm의 아트타일 792장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벽화를 완성했다.

완성된 벽화는 높이 22m, 너비 18m의 완산경찰서의 벽면 전체가 전주의 옛 모습을 품은 거대한 캔버스로 재탄생했다.

이번 전주고지도 벽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전주시는 13일 완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서 벽면에 설치된 18세기 전주 고지도 벽화의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는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 전라감영 복원과 연계해 품격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을 포함한 전주 구도심은 전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고 생각한다"며 "구도심 100만평이 아시아문화 심장터로 조성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전주 구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세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